

대전지역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회현실과 지역교회의 과제에 대한 연구*

조 용 훈

(한남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 I. 서론
- II.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회현실
- III.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 선교를 위한 신학적 토대
 1. 하나님의 선교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
 2.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존엄성
 3. 봉사과 섬김의 디아코니아 신학
 4. 손대접의 코이노니아 신학
 5. 종교 문화적 다원주의 신학
- IV. 대전지역 교회 및 선교단체의 사역과 평가
 1. 이주노동자 선교와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2. 외국인 과학기술자 및 유학생 선교와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
 3. 평가와 제언
- V. 결론

• ABSTRACT •

We can assume there are approximately 3,000 migrant workers and 500 foreign scientists and engineers in the city of Daejeon, in Korea. But they suffer from lower wages, forced labour, industrial accidents and inferior living conditions. Now the mission for them became the new mission task for the Korean church.

The theological tasks for the effective mission to migrant workers and foreigner scientists and engineers are as following: Firstly, as a holistic mission theology, *missio dei* includes evangelism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special mission working for the foreign scientist and engineers demands the *tent-making mission* theology. Secondly, all person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sexuality and social status are entitl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f we discriminated migrant workers and foreigner because they are not born in Korea, we did commit a sin to God. Thirdly, as Christian social service, *diakonia* seeks care and service to the least people, namely migrant workers. Fourthly, hospitality to the foreigner is the hand downed virtue from the ancient Christianity and should to be recovered by the Christianity today to face the global age. Lastly, Korean churches should develop the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theology and attitudes, because most of migrant workers are Asian, and religiously, muslim, buddhist or hindi.

Key Words: migrant workers, missio dei, tent-making mission, human rights, diakonia, hospitality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3-002-A00066)

1. 서론

경제의 지구화, 3D 업종에 대한 기피, 고임금 사회로의 발전, 그리고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 나라에서 이주노동자 수입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2003년 현재 우리 나라에는 90여 개 국에서 온 약 37만 명 정도의 이주노동자와 2천 명 정도의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밀입국, 위장결혼, 유학 형태의 노동자까지 고려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4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을 출신국가 별로 보면, 중국,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순으로 동남아시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본국에서 해외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중간층으로 20-30대의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²⁾ 외국인과학기술자의 경우 인도나 러시아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나이가 30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

대전 충남 지역에는 약 1만2천 명 정도의 이주노동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전에는 1-4공단에 약 2-3천 명 정도가 도금이나 염색 등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대덕연구단지에는 외국인 과학기술자 300여 명, 인근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외국인 유학생 300여 명 정도가 학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연구단지 기숙사나 주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체류기간도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분명한데다 사회적 대책마저 미비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각종 인권침해와 문화적 충격으로 말미암는 어려움들, 심지어는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와 같은 문제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1991년 경기도 남양주의 성생원교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어 1992년 11월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03년 현재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각종 단체 수는 약 159개 정도인데, 파악되지 않은 선교단체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기독교 관련 선교단체나 기관, 교회는 약 90개다. 구체적으로 천주교 12곳, 장로회 통합 36곳, 장로교 합동 38곳, 장로교 기장 11곳, 감리교 9곳, 성공회 3곳, 그리고 침례교와 성결교가 각각 1곳씩이다.³⁾ 한편, 외국인 과학기술자선교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1개의 평신도 선교단체가 사역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선교에 관심하는 교회나 선교단체의 활동은 안산이나 성남 지역 교회에 비해 열악한 형편이다.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선교기관으로는 대전 1-2공단 인근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과 외국인 과학기술자와 유학생 선교단체로는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Scientists & Engineers Ministries:SEM)가 있다.

이 연구는 대전지역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현실을 파악하고, 교회의 사회윤리적·선교적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 선교에 관심 하는 두 개의 선교단체의 신학배경과 활동내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회현실을 살펴보고 선교를 위한 신학적 배경을 탐색하겠다. 그

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출판부, 1999), 254.

3) 박천웅, “이주노동자 운동과 지원단체의 활동 전망”, 대전포럼,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2003), 34.

런 다음에 대전지역의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선교단체의 활동을 살피면서 미래적 과제를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II.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회현실

이주노동자의 사회현실은 우리 나라 각 도시마다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코리안 드림’을 위해 이 땅을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다. 1995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계속된 이주노동자 농성장에 등장했던 피켓구호인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라는 표현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들은 산업현장에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폭행과 괴롭힘, 임금체불, 열악한 작업조건, 산업재해와 직업병,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⁴⁾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상사 또는 노동자에게서 욕설과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40%, 여권 압류는 36.9%, 폭행 체벌은 9%, 성희롱을 받은 노동자도 1.8%나 되었다.⁵⁾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격차나 직장 내 차별대우도 문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노동일수는 국내 제조업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보다 2-3시간 더 많은데, 잔업, 야간작업, 그리고 휴일노동의 경우에도 잔업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⁶⁾ 그리고 이주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업무나 일은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나 허드렛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주가 이주노동자의 불법 체류자 신분을 악용하여 생기는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한편, 산업재해에 대한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가운데 28.3%가 작업 중 부상 경험이 있고, 22.6%는 질병을 앓고 있지만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29%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⁷⁾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2001년도 및 2002년도 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원활한 언어소통과 기계 숙련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재직기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산업재해가 총 재해의 65%를 차지했고, 한국에 입국한지 2년 미만의 이주노동자들에 주로 발생했다.⁸⁾ 그 외에도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작업장 안에서 한국인 상사나 남성노동자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모성보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임신을 해도 낙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보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합숙소에 기거하는 사람이 다수이고, 건축 공사장의 임시숙소, 그리고 공장 근처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동으로 셋집을 얻어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공장 안의 임시숙소로 쓰이는 콘테이너 박스는 물론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라 하더라도 방이 협소하고 화장실이나 주방시설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한편, 기숙사가 없는 회사의 경우 노동자 자신이 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

4)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2002), 53-68.

5)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20일.

6)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253-254.

7)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20일.

8) 양혜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과제”, 대전포럼,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55.

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이주노동자의 또 다른 고통은 문화적 소외다. 그들은 같은 아시아인이면서도 우리 나라와는 다른 문화와 종교권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언어 차이로 말미암는 오해와 갈등이 적지 않다. 음식문화도 다른데,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도는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들이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식단을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어려움이 생겨난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10시간 내외이며 여가시간은 4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다.⁹⁾ 여가는 주로 텔레비전 시청, 잠, 세탁, 친구방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교회나 성당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같은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 정보교환이나 친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간혹 쇼핑과 관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경제적인 이유나 안전상의 이유에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체류기간도 장기화될 경우 도시 변두리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계도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¹⁰⁾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이후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면서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일부 이주노동자에 의한 범죄집단의 형성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권차별에 대한 불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강제출국이나 실직으로 인한 생계불안의 심리가 폭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범죄행위가 늘고 있다. 2002년 9월말 현재 외국인 범죄는 1,691건으로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¹⁾ 최근에는 이주노동자의 마약범죄도 점차 늘고 있는데,¹²⁾ 그 이유는 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극심한 외로움과 불법체류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

III.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 선교를 위한 신학적 토대

1. 하나님의 선교와 평신도 전문인 선교

이주노동자들이 한국교회의 우선적 선교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할 이유는 여럿이다. 먼저,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작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의 출신 성분이 중산층 이상으로서 귀국할 경우 그 사회의 지도층으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에 필요한 재정과 노력, 선교현지에서 겪게 될 문화충격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선교야말로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교는 전통적인 개종중심이나 교회중심적 특징을 벗어나서 점차 전인 구원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발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선교의 도구다.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복음전도(케리그마), 양육(디다케), 사회봉사(디아코니아), 그리고 친교(코이노니아)를 포함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9)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283.

10) 이우성,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정착과 그리스도인의 과제”,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하나님 나라와 이주 노동자 선교」(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4), 104-105.

11) 이호택,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현안”, www.pnan.org.

12) <경향신문>, 2004년 9월 20일.

선교란 전인적 구원을 위해 증거, 봉사, 치유, 해방, 전도, 양육, 교회개척 등 다면적이며 총체적인 사역이다.¹³⁾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틀(J. Stott)조차 선교적 목적으로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면서, 구제와 자선활동 같은 사회봉사(social service)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경제 활동인 사회행동(social action)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⁴⁾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한 사회선교 활동은 1960-1970년대에 경제개발의 부작용에 맞서서 기독교 농민운동, 도시빈민선교, 그리고 도시산업선교의 형태로 발전했다. 1980년대에는 정치적 억압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현실에 직면하여 도시산업선교와 병행하여 민중교회운동으로 발전했다. 1990년대에는 경제의 지구화 현실에 맞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에큐메니칼적 연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성생원, 갈리릴 교회, 회년선교회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주노동자 선교는 1993년 ‘한국교회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가 조직되고, 1995년에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화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 이주노동자 선교단체들은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예배, 신앙상담, 성경공부, 전도활동 등), 문화사역(한글교육, 컴퓨터교육, 국내노동법교육, 산업안전교육, 성교육 등)과 봉사활동(체육대회, 의료지원, 소식지 발간, 쉼터운영, 외국인공동체 사업 지원 등), 그리고 상담서비스활동(임금체불, 의료, 산업재해, 출국문제, 법률상담, 폭행 등)을 주요 선교활동으로 삼고 있다.

한편,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평신도를 중심한 전문인선교 형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인선교(Tentmaking Mission)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평신도 전문직업인이 자비량을 원칙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인선교는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퀘이커운동, 모라비안 형제들, 학생자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등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¹⁵⁾ 전문인선교는 사회가 점점 전문화될수록, 특별히 기독교에 배타적인 이슬람문화권선교나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전략에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역은 한국교회 평신도의 역량을 발굴하고 그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목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선교가 지나치게 교회중심적이고 목회자중심적이었다면, 지구화 시대의 선교전략은 평신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는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과 더불어 외국인 과학기술 전문인들의 생활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선교단체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와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에 대한 선교에 관심하는 평신도 전문인들을 전문인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이 이곳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귀국할 때 자기 나라에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과 협력하거나 동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에도 관심하고 있다.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는 평신도 전문인선교 신학적 토대 위에서 문화사역(한글교육과 한국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활동)과 전도 및 양육 프로그램(사영리 학습 및 영어성경공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선교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지인 리더를

13) 김영동,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편, 「외국인노동자 선교와 신학」(한들출판사, 2000), 220, 228.

14) J. Stott, 정옥배 역, 「진정한 기독교」(IVP, 1997), 444-455.

15) 김태연, 「21세기의 선교의 핵, 전문인 선교사를 깨워라」(이래서원, 2001), 126-129.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국민에게 선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 독일교회가 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그 나라 출신의 목회자나 신학생을 도와 자국민 목회와 선교를 하게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갈릴리교회 안에는 방글라데시인과 네팔인을 위한 연합교회, 몽골교회, 파키스탄교회, 필리핀교회, 인도네시아 공동체 등 자국민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설립되어 예배와 성경공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선교가 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전인구원에 관심하는 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는 중요한 선교적 관심사에 포함된다.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하며, 국적·민족·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이주노동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 칸트(I. Kant)의 주장대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 자체이지 수단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는 비록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수입된 노동력이라 하더라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요 동일한 권리를 지닌 근로자다.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물론,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정의로운 것도 아니지만, 인종과 피부색과 같은 요인에 의한 차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성서는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에 대한 학대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출 22:21)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레 19:33-34)

그런데 인권은 윤리적 호소나 구호의 외침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인권(human rights)은 법(rights)적 문제로서 그것이 현실적 실천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¹⁶⁾ 다행히 우리 나라 정부는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허가제’를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신분이 ‘산업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바뀜에 따라 취업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구직활동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사회보험 혜택도 받게 된다. 물론,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불법체류자의 증가, 기업의 고용비용 증가, 노사분규의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산업연수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송출비리나 인권침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법 차원에서 우리 나라도 비준한 국제조약들은 한결같이 국적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¹⁷⁾ 그리고 아직 우리 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법규들 가운데에는 이주

16) M. Honecker, *Das Recht des Menschen*(Gütersloh 1978), 96.

17) 국제연합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1966년; 1990년 비준 및 발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1966년; 1990년 비준 및 발효),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년; 1979년 1월 발효), 국제노동기구의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별금지에는 물론 그들의 가족초청 권리까지 언급하는 국제법규들도 있다.¹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관심하는 교회는 우리 나라 정부가 이미 비준한 국제조약들을 성실히 준수하고, 인권보호에 필요한 다른 조약들도 비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3. 봉사과 섬김의 디아코니아 신학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들은 한국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편견으로 고통 당하는 소외계층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그 자신이 ‘나그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다.(마 25:31-46) 따라서 작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봉사의 행위야말로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지역교회는 많지 않다. 아마도 이들이 교회의 성장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소수의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교육활동(한글교육, 성경공부 등), 특별행사 지원 및 보조, 양방이나 한방 치료와 같은 의료봉사, 상담활동, 이미용 봉사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와 섬김의 사역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디아코니아 신학의 정립을 통해 봉사자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디아코니아’란 기독교의 ‘사회적 섬김’이나 ‘사회봉사’로 번역해도 좋은 말로서, 신약성서에 삶의 자리를 두고 있다.(행 2:42 이하; 4:32 이하) 예루살렘 원시 공동체는 말씀선포와 동시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겼다. 복음선포(witness)와 봉사(service)는 원시 기독교공동체 사역의 본질적인 두 요소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¹⁹⁾ 원시 기독교공동체는 이 둘을 양자택일적이거나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²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 내셨다. 디아코니아는 사회적 약자를 편드는 하나님(신 10:18)으로부터 출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막 10:45)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에 대한 섬김과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구체화되고 실천력을 갖게 된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전문적 능력과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욕과 열정만으로 좋은 봉사자가 될 수는 없다. 봉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훈련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 예로 한글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학생관리법이나 학생지도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한글교육을 위한 학습방법, 자료발굴 및 자료제공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6주간의 수습기간을 거

동등한 대우에 관한 협약’(1925년; 2001년 비준 및 발효),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1958년; 1998년 비준 및 발효).

18) 국제연합의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국제노동기구의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협약’(1949), ‘불법이주 및 이주근로자의 기회와 처우 균등 촉진에 관한 협약’(1975).

19)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한울, 1992), 13.

20) 정종훈, “사회선교의 신학적인 근거설정을 위한 모색”, 「신학사상」 98(1997/가을), 207.

친 후에나 교실에 투입된다. 이 기간 동안 한글교육방법, 사영리 영어교육, 영혼 구원에 대한 동기부여, 전도훈련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봉사활동은 단지 그들의 아픔을 상담하고 복지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자선적 차원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차원까지 관심하는 '사회적 디아코니아'(gesellschaftliche Diakonie)²¹⁾가 요청된다. 왜냐하면, 이주노동자의 소외나 차별, 인권침해는 제도나 구조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손대접의 코이노니아 신학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나 외국인 과학기술자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다. 일반적으로 나그네는 자신의 안전과 복리를 제공해 줄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역시 이주노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1960년대에는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1970년대에는 중동의 건설노동자로, 그리고 지금은 일본과 미국으로 일터를 찾아 떠나고 있으며 수십 만 명이 불법체류자로 머물러 있다. 그런 이유에서 어느 민족과 사회보다 외국인에 너그러워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고대사회에서 낯선 사람은 적으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이방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마술적 힘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점차 여행이나 상거래를 위한 이방인과의 접촉이 필요했고, 더불어 이방 나그네의 체류권에 대한 인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²²⁾ 구약성서의 족장들은 '유리하는 아람사람'이었다.(신 26:5-11) 이집트에서 해방된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리고(출 23:9) 대접해야 했다.(레 19:33-34)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소아시아와 유럽의 도시들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신구약 중간 시기에는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 그런 이유에서 성서는 손대접을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다. 아브라함(창 18), 사르밧과부(왕상 17-18), 수넴여인(왕하 4), 마르타(눅 10:38-42), 바울(행 28:30-42), 루디아(행 16:11-15),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행 18:1-3)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손대접의 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후 손대접의 덕목은 계속해서 강조되었고(롬 12:13; 히 13:2; 벧전 4:9), 교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딤후 3:2; 딤후 1:8)

손대접은 친구나 가족에게 베푸는 친절을 나그네에게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헬라어 단어 '필로세니아'(philoxenia)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xenos'와 사랑을 의미하는 'phileo'가 결합된 말이다. 한편, 쾨니히(J. Koenig)에 따르면, 나그네(xenos)란 단어의 동사 'xenizein'은 '놀라다'는 뜻으로 신비한 반전이나 주인과 손님 사이에 나타나는 기쁨을 의미한다.²³⁾ 화란어 'gastvrijheid'는 '손님의 자유'라는 말로서, 손대접이 손님에게 우애를 갖고 대하되 그를 구속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해주되 그를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²⁴⁾

2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즐저, 「지구화시대의 기독교」(대한기독교서회, 1999), 124-127.

22) de Vries, J, "Gastfreundschaft", in: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d. II, 3. Aufl. 1205.

23) J. Koenig, 김기영 역, 「환대의 신학」(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8.

24) H. Nouwen, 이연희 역, 「발돋움하는 사람들」(성요셉출판사, 1988), 74.

손대접은 지쳐있는 나그네에게 육체적·영적·사회적 양식을 공급해 줌으로써 그에게 생명을 부여한다.²⁵⁾ 손대접은 손님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를 영접하고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눔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차이를 초월하고 특정한 범주나 부류의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사회적 경계를 무너뜨린다. 말하자면, 손대접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길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²⁶⁾ 헨리 나우엔(H. Nouwen)의 표현대로,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친절한 환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영성생활의 중요한 특성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덕행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 의미를 지닌다. 즉, 나그네에 대한 적대가 환대로 바뀌면 두려움 속에 있던 낯선 사람은 손님이 되어 뜻하지 않은 선물을 주인에게 내놓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인과 손님 사이의 구분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해 진다.²⁷⁾ 말하자면, 손대접은 주인과 손님 사이에 복음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창조한다.

손대접의 전통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중요 덕목으로 계승되었다.²⁸⁾ 4세기에 가이사랴의 바실레오스에 의해 세워진 병원은 가난한 나그네를 위한 것이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에 따르면,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수도원의 정체성과 실천이었다. 중세기에 교회 감독들의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손대접이었다. 16세기에는 많은 개신교도들이 신앙적 이유에서 핍박을 받고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 환대의 의미는 더욱 중요시되었다. 칼뱅은 이들 신앙 난민들을 환대하는 일이야말로 신성한 일이라고 말했다. 종교개혁 이후 여전히 종교적·정치적 난민들과 망명자들이 속출했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들에게 자신의 영지를 개방하여 정착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헤른 후트’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모라비안 부흥운동이 일어나 나중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그네 환대의 전통은 점차 가정이나 교회의 일이 아니라 공공적인 일로 바뀌어갔고, 공적 영역이 세속화되면서 손대접이 지녔던 영적 의미도 약해지고 말았다. 현대 사회에 들어 나그네 환대는 상업화(숙박업), 관료화(사회복지사업) 그리고 세속화(육체적 필요 충족)되면서 그 인격적이고 영적인 의미들을 상실했다. 동시에 나그네에게 개방되어 있었던 가정은 점점 작아지고 사적인 공간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낯선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커지고 나그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도 상실하고 말았다.

다른 어느 시대보다 지역적 이동이 활발해진 우리 시대에 손대접의 덕목은 다시 한번 중요해진다. 크리스틴 폴(C. Pohl)의 주장대로, 손대접의 기독교 덕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복음사역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정과 교회가 밀접히 관련되어 세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선교사역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²⁹⁾

5. 종교 문화적 다원주의 신학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 출신들이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슬람권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힌두권에는 네팔과 인도, 불교권에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종교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는

25) C. Pohl, 「손대접」, 16.

26) C. Pohl, 정옥배 역, 「손대접」(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02), 81-82, 100.

27) H. Nouwen, 이연희 역, 「발돋움하는 사람들」(성요셉출판사, 1988), 67-69.

28) 아래 내용은 다음을 참고했음: C. Pohl, 「손대접」, 54-77.

29) C. Pohl, 「손대접」, 76.

데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의 갈등 원인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생활관습 및 문화의 차이’라고 한다.³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불성실하고, 지저분하고, 무식하며,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마약이나 질병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범죄자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생겨난다. 둘째, 이주노동자가 유색인종인데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인종주의적 태도도 이들에 대한 차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³¹⁾ 셋째, 신분적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우리 나라의 전근대적 노사관계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노비나 머슴, 식모쯤으로 보는 차별적 태도가 생겨났다.³²⁾ 마지막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나라가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단일민족임을 긍지로 생각했다는 점도 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미쳤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배타적 태도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네덜란드의 인류학자 홉스테드(G. Hofstede)는 한 나라의 문화와 의식구조의 특성을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정의했다: 권력의 거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 불확실성 회피 정도(uncertainty avoidance), 인생에 대한 장기지향 대 단기 지향. 이 가운데 불확실성 회피 정도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이나 미지의 상황, 그리고 자기와 다른 것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증, 외국인 공포증(xenophobia)이 심하게 나타난다.³³⁾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다른 것을 잘 참지 못하여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재일동포 차별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중국동포나 외국인에 대해선 차별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207개 경제·무역·사회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세계화에 대한 태도나 외국문화의 수용정도가 10점 만점에 6.6점으로 52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42위로 나타났다.³⁴⁾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배타적 태도로 말미암아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외국인의 반한(反韓)감정이 커가고 있다.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나 과학기술자가 대부분 고학력 출신으로 나중 그들의 나라에 가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반한감정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경제가 지구화되는 시대에 이런 배타적 태도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바야흐로 지구화 시대에는 종교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정부사회단체는 물론 교회의 관심과 의식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다른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선교에 관심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들마저 신학적 근본주의에 머무를 때 자칫 이들에 대한 선교가 정복적인 형태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독일의 나치즘과 반유대주의 관계에 대한 과거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주의적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될 때 타종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30)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402-403.

31) 함한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집(1995), 208-213.

3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395.

33) G. Hofstede,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학지사, 1995), 163-205.

34) <한국일보> 2004년 10월 1일.

서 타문화만이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의 관심은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실천적 연대에 관심이 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남아프리카와 남미 여러 나라에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우리 나라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협력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발전은 물론, 한국 개신교의 배타성을 극복하는 데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IV. 대전지역 교회 및 선교단체의 사역과 평가

1. 이주노동자 선교와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에는 모두 4개의 공단이 있다. 대덕구 대화동의 1, 2공단에는 입주업체 130여 개에 약 5천 여 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대덕구 문평동과 신일동의 3, 4공단에는 입주업체 230여 개에 약 1만 여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2-3천 여명으로 추정되고, 기타 가내 수공업 분야에도 수백 명의 노동자가 불법고용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은 공단 지역에 위치해 있는 빈들교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수호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전노회의 노동상담소가 후원이사회가 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선교단체가 이주노동자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노동자의 권익 찾기를 위한 노동법 상담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출입국, 송금, 국제결혼과 같은 다양한 상담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 질병, 송금, 병원비 문제와 같은 생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한 해 동안 상담한 900여 건의 상담 중에서 진료지원이 500여 건, 구인과 구직이 110여 건, 그리고 임금체불이 80여 건이다. 2)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교육 강좌와 영어회화는 물론 기독교에 관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공부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다. 그 외에도 미술부나 통기타부, 밴드부를 운영하고 있다. 3) 다양한 체육활동(축구부, 농구부, 태권도반, 배드민턴반)과 한국역사 이해를 위한 독립기념관 탐방,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설날과 추석 명절잔치 같은 특별활동이다. 4) 이주노동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돕기 위해 국가별 모임을 만들고,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하며 약간의 재정적 후원을 하기도 한다. 체육대회, 등산, 해변수련회(매해 8월중: 150여명 참가)를 통해 이주노동자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5) 이발, 의료(진료, 치과), 식사 제공 및 실직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다. 현재 쉼터에는 평균 7-8명 정도가 쉬어가고 있다. 6) 2000년 10월 대전공단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베트남 여성 노동자 응아씨가 사귀던 한국인 남성 노동자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베트남 여성노동자 응아씨 기념사업으로 베트남 현지

에 복지관 건립(구찌마을 복지관)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대전역 부근에 이주노동자의 문화복지를 위한 국제문화복지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2. 외국인 과학기술자 및 유학생 선교와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SEM)

대덕연구단지는 840만평의 면적에 2004년 현재 입주 연구기관이 250개, 연구종사자가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 연구단지에는 충남대, 대덕대, KAIST, 정보통신대학이 있으며 주변에는 여러 개의 대학이 인접하여 있어서 수 백 명의 외국인 과학기술자와 유학생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연구단지 안에는 약 300여 명의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인근 대학에는 300-4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등록하여 수업하고 있다.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출신국별로 보면 러시아 및 동구 유럽,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의 사회주의 국가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로서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파송하는 데 궁극적 목적을 두고 1994년에 설립되었다. 이 선교단체는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에서 훈련받던 과학자들이 외국인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설립되었다. 현재 이 선교단체의 프로그램에는 매주 평균 100-150여명 이 참여하고 있다.

이 선교단체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한글학교에서는 60-70여명의 학생들을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3회 한글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안에서 직접 이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개강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2) 영어성경공부반은 국제외국인학교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인 자원봉사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성경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외국인 과학기술자 2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3) 기타 특별활동으로 구경행사, 바자회, 체육대회, 여름캠프, 추석행사, 성탄절행사, 바자회 등 각종 문화활동이 있다. 4) 특기할 프로그램은 외국인재소자를 위한 상담활동과 성경공부, 한글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교도소에는 현재 20-30여 개국 출신의 300여 명의 외국인 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약 5-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약 40여 명의 외국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성경공부를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영치금 후원은 물론 출소 후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3. 두 선교단체에 대한 평가와 제언

선교란 복음전도와 봉사, 개인의 영혼 및 전인의 구원, 교회개척과 사회적 해방이라는 포괄적인 사역이다. 그런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이 복음의 선포보다는 봉사(사회적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는 증언보다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개종자를 만드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가 하나님의 선교신학에 기초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에 사역의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평신도 전문인선교 신학에 기초하여 개종과 제자화에 초점을 둔다. 전자에서는 목회자가 주축인 반면에, 후자에서는 평신도가 주축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선교단체의 신학적 차이만이 아니라 두 선교단체가 위치한 지역의 현실과 선교대상의 차이에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 전자가 근로조건이 취약한 공단인근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를 선교대상으로 삼았다면, 후자는 근로조건이 비교적 좋고 안정되어 있는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인권문제가 적은 과학기술자나 유학생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전인적 구원에 관심한다는 점에서 복음전도와 봉사라는 두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통전적인 선교신학 정립이 요청된다.

둘째, 두 단체 모두 문화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두 선교단체의 상호협력과 공동 주최를 통해 재정적 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매년 구정잔치를 두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실행하고 있는데 300여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합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외국인들의 만남과 대화는 그들의 정체성 형성은 물론 선교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동시에 두 선교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의 에큐메니칼 훈련도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신학적 소득이다.

셋째, 과거 선교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교단체간 불필요한 경쟁과 견제는 선교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 반대로 두 선교단체가 선교전략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면 각자의 선교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교 전체에 커다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선교단체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간의 정기적인 만남과 프로그램 공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두 선교단체 모두 재정적·인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훈련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이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반면에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는 대학생만이 아니고 직장인, 주부, 그리고 외국인까지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의 경우 정기적으로 교사의 동기부여와 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미나 진행 방식 역시 강의식보다는 워크숍을 통해 현장교육 방식을 택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선교에 대한 지역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써야 한다. 두 선교단체가 힘들어하는 재정과 인적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지역교회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다. 이를 위해 두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간의 적극적인 만남과 대화가 필요하다. 한편, 대전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두 선교단체의 연합활동에서 나아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전국 선교단체들 간의 연결망을 맺는 일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지역의 시민단체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대학과의 협력과 연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써, 한남대학에서는 매년 이주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과 더불어 이주노동자를 위한 일일차집과 무료 컴퓨터교실을 열고 있다. 한편,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는 한남대학과 대전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글교육과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대학과의 협력은 재정문제의 해소와 전문성 부족문제의 극복,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V. 결 론

현재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저개발과 빈곤, 정치적 억압과 차별, 열악한 인권상황이라

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 와서는 온갖 편견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차별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야말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작은 자’이다. 한편, 9.11 테러 이후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 발로 찾아오는 타문화, 타종교 외국인들은 저비용 고효율의 해외선교의 기회를 한국 교회에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인과 한국 교회는 이러한 좋은 선교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는 한국인의 문화적 편견과 한국교회의 배타적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

만약 한국교회가 문화적 편견과 종교적 배타성을 넘어설 수 있다면 외국인 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한국교회는 더 풍성한 신앙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교회들과의 연대는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미 한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런 역할이 요청된다.

K C I

참고문헌

- 김영동,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편, 『외국인노동자 선교와 신학』(한들출판사, 2000)
- 김태연, 『전문인 선교사를 일깨워라. 21세기 선교의 핵』(이레서원, 2001)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부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 편, 『외국인 노동자와 선교』(한들출판사, 2000)
- 박천웅, “이주노동자 운동과 지원단체의 활동 전망”, 대전포럼,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2003)
-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_____,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6(1) (2002)
- _____, “한국의 이주노동자 지원운동”,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2003)
- 양혜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의 과제”, 대전포럼,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 이삼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과제”,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한울, 1992)
- 이우성,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정착과 그리스도인의 과제”,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하나님 나라와 이주 노동자 선교』(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4)
- 이호택,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현안”, www.pnan.org.
- 정종훈, “사회선교의 신학적인 근거설정을 위한 모색”, 『신학사상』 98(1997/가을)
- 조용훈, 『지구화시대의 기독교』(대한기독교서회, 1999)
- 함한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집(1995)
- Pohl, Christine, 정옥배 역, 『손대집』(도서출판 복있는 사람, 2002)
- Koenig, John, 김기영 역, 『환대의 신학』(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Nouwen, Henry, 이연희 역, 『발돋움하는 사람들. 영적 생활의 세 가지 전환운동』(성요셉출판사, 1988)
- Stott, John 정옥배 역, 『진정한 기독교』(IVP, 1997)
- Hofstede, Geert,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학지사, 1995)
- Honecker, Martin, *Das Recht des Menschen* (Gütersloh 1978)
- de Vries, J, "Gastfreundschaft", in: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d. II, 3. Aufl.
- <경향신문>, 2004년 9월 20일
-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20일
- <한국일보>, 2004년 10월 1일